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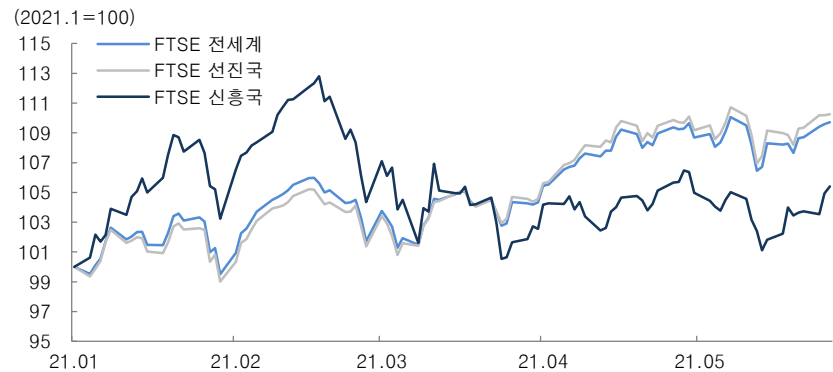
Global Strategy

Global Strategist 문남중
namjoong.moon@daishin.com

6월, 환호와 걱정을 모두 경험할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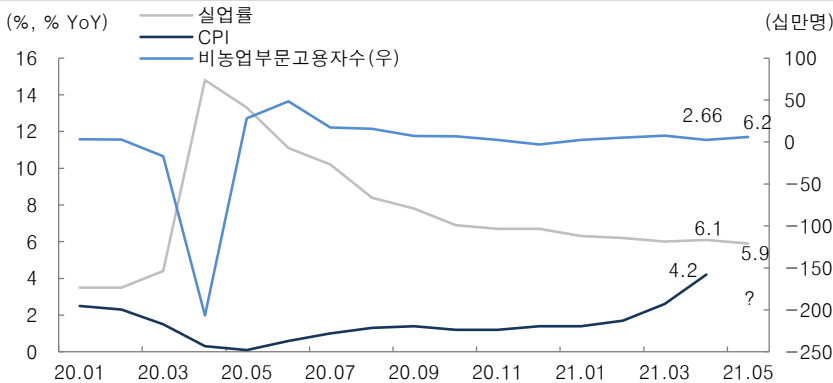
- 5월 건전한 증시 조정이 지나가고 6월은 환호와 걱정을 연달아 경험하는 롤러코스터 장세가 예상된다. 롤러코스터 장세는 주가가 갑자기 오르고 내리는 장세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6월 증시의 향방을 가늠 변수는 1) 6월 4일 예정된 미국의 5월 고용지표(비농업부문고용자수, 실업률), 2) 6월 10일 예정된 미국의 5월 소비자물가(CPI)로 각 변수가 시장에 미치는 파장에 따라 올해 들어 처음 경험하게 될 증시의 사상 최고치 시점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 우선적으로 경험할 롤러코스터 장세의 첫 국면은 주가가 갑자기 오르는 장세로 5월 증시 조정의 원인이었던 1) 단기 과열 해소, 2) 테이퍼링 우려 완화, 3) 비트코인 가격 및 테슬라 주가 변동성 완화에 4) 6월은 미국의 집단면역체계 도달 가능성이 높은 시기인 만큼, 이를 바탕으로 안도성 투자심리 개선과 자금유입을 통해 5월 움추렸던 증시 상승 탄성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국면에서 주가가 갑자기 내리는 장세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2가지 변수(5월 고용지표, 5월 소비자물가)의 시장 영향력에 따라 빠르면 6월 둘째주, 늦어지면 6월 셋째주에 찾아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 5월 26일 기준, 미국의 5월 비농업부문고용자수 예상치는 62만명으로 전월치(26만 6천명 증가)를 다시 상회하고, 5월 실업률은 전월 6.1%에서 0.2%p 낮아진 5.9%가 예상되고 있는 만큼 이대로만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노이즈로 작용할 가능성은 없다. 다만 4월 고용지표도 시장 예측에서 빗나간 만큼 5월 고용지표가 예상치를 하회하거나 전월보다 부진할 경우 증시에 미칠 파장은 상당히 커질 가능성이 크다.
- 현 예측치를 바탕으로 5월 고용지표 영향이 제한되더라도 10일 발표되는 5월 소비자물가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전월대비 0.3% 증가해 전월치(0.8% 증가)를 하회하지만 전년동월대비 예측치는 아직 없어 전월 4.2%(YoY) 수준 또는 상회할 경우 인플레이션과 조기 테이퍼링 우려가 겹치며 증시 조정이 일시적으로 찾아올 가능성이 크다.
- 올해는 감염병이 존재하는 한 전세계 통화 및 재정정책 공조가 지속될 수 밖에 없어 일시적 변동성은 비중확대의 기회가 될 수 밖에 없다. 하반기에는 지난해 하반기 기저효과로 낮아질 물가 레벨을 감안하면 6월 변동성 확대는 성장주를 적극적으로 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그림 1. 5월 조정 마무리 후, 역사적 최고가를 경신할 6월 증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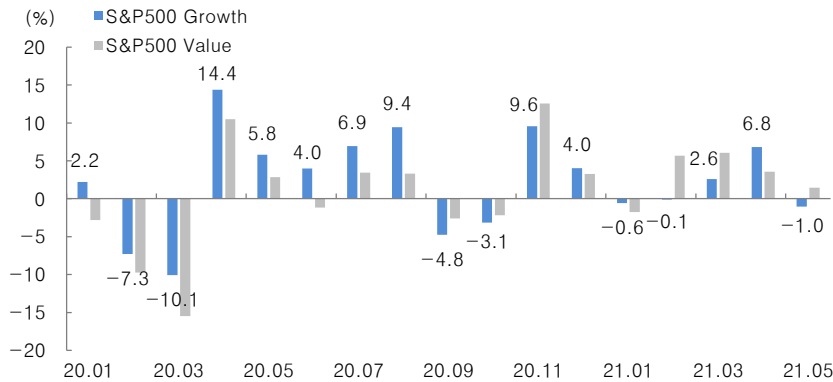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2. 환호 속, 커지는 걱정거리. 미국 5월 고용지표 및 소비자물가가 관건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3. 6월 성장주를 담은 좋은 기회. 변동성이 찾아온다면 적극적으로 비중 확대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ompliance Notice

금융투자업규정 4-20조 1항5호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작성자: 문남중)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